

간호대학생의 감정노동,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내영 · 김소희* · 김영선*

(신라대학교 · *영산대학교 · *부산가톨릭대학교)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Labor, Clinical Practice Stress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ae-Young LEE · So-Hee KIM* · Young-Sun KIM*

(Silla University · *Yongsan University ·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tudy to investigate emotional labor,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 from June 1 to July 12, 2015.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on SPSS Win 20.0. The study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The students' emotional labor was 3.13 ± 0.54 in average on a scale of 5.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was 3.65 ± 0.47 in average, and student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was 3.41 ± 0.43 . The emotional labor has positive correlation significantly with clinical practice stress ($r=0.353, p<.001$),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r=-0.170, p<.007$). I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o put control variables, emotional labor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were no significant influence towar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he result,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s emotional labor should be released. Moreover it is necessary to attention to the health care of nursing students and it is needed to boost up the students satisfaction with major, more friendly relations should be built with co-trainees.

Key words : Emotional Labor,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에 있어 임상실습은 이론적 지식을 임상 현장의 대상자에게 직접 적용함으로써 실제적인 간호지식과 실무를 경험하고 간호사로서의 신념과 가치관, 태도 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또한 졸업 후 간호 현장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간호교육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Benner, Patricia, 2009).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교육 인증평가기준으로 간호교육과정 중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시간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KABONE, 2016). 그러나 최근 환자 안전과 서비스가 강조되는 임상 현장에서 간호학생들은 직접간호를 제공할 기회가 줄

† Corresponding author : 055-380-9368, nursinghee@ysu.ac.kr

※ 이 연구는 2014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고 눈치를 보는 등 스트레스를 가지고 실습에 임하고 있다(Kim, Mi-Jong & Yoo, Seung-Yeon, 2014). 특히 간호학과 증설에 따라 임상실습기관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간호교육기관들은 대학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과 실습교육을 위한 협력을 체결하여 실습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속한 학교의 부속기관이 아닌 임상실습기관에서 실습을 하게 되고 기관의 규모나 기타 환경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임상실습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실습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ee, Sung-Eun, 2001). 이는 대다수의 간호교육기관이 당착한 문제로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실습 참여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Yang, Jin-Ju, 2009; Choi, Gui-Yun, 2009). 이는 향후 간호사로서의 임상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효과적인 임상실습을 위해서는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임상실습 만족도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수행능력, 자아존중감, 우울, 자기효능감, 대처유형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상실습 동안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과 긴장을 느끼고, 부족한 임상수행능력으로 인해 환자의 부정적 태도를 경험하여 위축되고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된다(Lfmark, Smide, Wikblad, 2006). 임상실습 중에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들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전문직으로서의 학습능력의 저하를 유발하는 등 실습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Lee, Hea-Sook & Kim, Eun-Joo, 2008; Whang, Sung-Ja, 2006).

임상실습 시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 중 하나가 감정노동이다. 감정노동은 조직에서 구성원에게 강요하는 행위표현으로 개인의 내부 감정과 관계없는 직무의 일부분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제공 외에도 고객만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로서 간호사에게 감정노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런 감정노동은 간호사

의 직무스트레스, 소진, 직무만족도, 이직의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Mi-Mi & Han, Suk-Jung, 2013; Kim, In-Soon, 2009; Song, Mi-Ra & Park, Kuem-Ju, 2011). 학생들은 의료현장의 일선에서 환자와 대면하고 실습기관 간호사들의 지도를 받는 임상실습 과정 중에 자신의 의지가 아닌 실습기관의 요구에 근거하여 제한적인 감정표현 행위를 하게 된다. 감정노동은 관찰이나 훈련을 통해 학습되어 지는 것으로 간호사들의 실무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학습되어진 감정노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Arieli, Deniella, 2013).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노동은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학생들이 실습과정에 경험하는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있지 않다.

임상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경험을 통해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이고 간호사가 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감정노동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도 환자 뿐 아니라 실습 동료, 간호사, 타 의료인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Han, Jung-Jin, 2012).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정노동,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육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관련 감정노동,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감정노동,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감정노동,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와 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정노동,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S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승인번호1041449-201510-HR-004), 부산 소재 2개 간호대학과 3, 4학년 학생으로 비확률 편의표집 하였다. 표본 크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위한 대상자 표본 수 산출방법인 G power 3.1.3(Faul, Franz-Erdfelder, Edgar-Lang, Albert Gorge- Buchner, Axel, 2007)를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5%(양측), 검정력 80%, 효과 크기 0.2의 조건하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는 246명이나, 탈락을 약 10%를 고려하여 270명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 시작 전 연구대상 학생에게 면대 면으로 연구의 목적, 방법과 설문에 참여하는 동안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만 둘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을 설명 한 후 자필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4년제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들로 3학년의 경우 1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연구대상 중 자료분석에 이용된 설문지는 총 269부였다.

3. 연구도구

가. 감정노동

Morris & Felderman(1996)이 개발한 감정노동 도구를 Kim, Min-Joo(1998)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감정노동의 빈도 3개 문항, 감정표현의 주의성 3개 문항, 감정의 부조화 3개 총 9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않다 1점, 그렇지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총 45점의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Min-Joo(1998)의 연구에서 Cronbach α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7로 나타났다.

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 공포 등 부정적 요인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임상실습이 방해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Whang, Sung-Ja(2006)가 개발한 임상실습스트레스 측정도구 57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상황특성, 개인특성, 외부적 조정요인 등의 3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 5점 척도 전혀 그렇지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Whang, Sung-Ja(2002)의 도구 개발당시 Cronbach α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다. 임상실습 만족도

Cho, Kyoul-Ja & Kang Hyun-Sook(1984)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와 Lee, Sung-Eun(2001)이 개발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를 기초로 Lee, Soon-Hee · Kim, Sook-Young & Kim, Jung-A(2004)가 수정, 보완한 도구 사용하였다. 실습교과 3개문항, 실습내용 6개 문항, 실습지도 9개 문항, 실습환경 7개 문항, 실습시간 3개문항, 실습평가 3개문항 등 총31개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조금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조금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졌다. Lee, Soon-Hee · Kim, Sook-Young & Kim, Jung-A(2004)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91$ 로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4. 자료분석

SPSS 20.0을 사용하여 일반적 특성, 감정노동,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만족도는 t-test와 ANOVA,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의 92.2%가 여자이고 45.9%가 4학년으로 평균 22.99세였으며 종교는 ‘없음’이 가장 많았다(66.7%).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50.7%, 진학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가 31.2%, 학과 성적은 ‘중위권’이 40.4%로 가장 많았다. 건강상

태는 ‘좋다’가 39.8%, 주거형태에서는 평상시는 ‘자택’이 60.5%, 실습시도 ‘자택’이 53.2%로 가장 많았다. 성격은 ‘긍정적’이 52.8%로 가장 많았고 대인관계는 ‘좋은 편’과 ‘보통’이 49.4%로 같았다. 실습동료와의 관계는 ‘좋은 편’이 59.5%, 실습 시 어려웠던 대인관계는 ‘임상 간호사와의 관계’가 61.2%로 가장 많았다. 실습 이수 기간은 평균 10개월이었으며 이론수업은 일부 수강한 경우가 69.5%, 편입생은 7.1%였다. 임상실습만족도는 성별, 전공만족도, 건강상태, 평상시 주거형태, 성격, 대인관계, 실습동료와의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인 경우($t=2.561, p=.011$), 전공만족도는 만족 할수록($F=13.624, p<.001$), 건강상태는 좋을수록($F=7.479, p<.001$), 주거형태는 자택, 기숙사, 자취의 순으로($F=2.785, p=.041$), 성격은 긍정적일수록($F=4.229, p=.016$), 대인관계는 좋은 편인 경우($t=7.576, p<.001$), 실습동료와의 관계는 좋을수록($F=7.576, p<.001$)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N=269)

Variable	n or Mean	% or S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Mean	SD	t	p	
Gender	Male	21	7.80	3.65	0.50	2.561	.011
	Female	248	92.20	3.39	0.42		
Grade*	3rd	123	45.90	3.47	0.41	1.948	.053
	4th	145	54.10	3.36	0.45		
Age(year)*		22.99	2.25				
Religion*	None	178	66.70	3.40	0.44	0.311	.818
	Buddhism	34	12.70	3.48	0.40		
	Protestant	43	16.10	3.42	0.46		
	Catholic	12	4.50	3.38	0.44		
Satisfaction on major*	Very satisfied	38	14.20	3.73	0.50	13.624	p<.001
	Satisfied	136	50.70	3.50	0.40		
	Neutral	75	28.00	3.27	0.37		
	Dissatisfied	18	6.70	3.02	0.50		
	Very dissatisfied***	1	0.40	2.61	-		
Motivation of nursing**	Aptitude/Interest	87	31.20				
	Advice	78	28.00				
	Job	79	28.30				

간호대학생의 감정노동,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Variable	n or Mean	% or S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Mean	SD	t	p	
Motivation of nursing**	High school grade	12	4.30				
	Mission	11	3.90				
	Other	12	4.30				
Academic record*	High rank	13	4.90	3.59	0.49	1.400	.234
	High-middle rank	63	23.80	3.49	0.37		
	Middle rank	107	40.40	3.39	0.43		
	Middle-low rank	68	25.70	3.36	0.47		
	Low rank	14	5.30	3.36	0.43		
Health Status	Very good	51	19.00	3.60	0.45	7.479	p<.001
	Good	107	39.80	3.42	0.39		
	Regular	92	34.20	3.37	0.43		
	Bad	19	7.10	3.08	0.43		
Residential Type_lecture*	Family home	161	60.50	3.38	0.46	2.785	.041
	Dormitory	55	20.70	3.49	0.36		
	Self boarding	49	18.40	3.42	0.40		
	Others***	1	0.40	4.42	-		
Residential Type_practicum*	Family home	143	53.20	3.42	0.45	0.046	.987
	Dormitory	14	5.20	3.44	0.31		
	Self boarding	61	22.70	3.42	0.42		
	Others	50	18.60	3.40	0.44		
Personality	Positive	142	52.80	3.49	0.45	4.229	.016
	Neutral	113	42.00	3.34	0.38		
	Negative	14	5.20	3.29	0.56		
Interpersonal relation	Good	133	49.40	3.50	0.45	5.948	.003
	Neutral	133	49.40	3.32	0.39		
	Bad***	3	1.10	3.59	0.44		
Peer relationship	Very good	46	17.10	3.62	0.55	7.576	p<.001
	Good	160	59.50	3.41	0.37		
	Neutral	61	22.70	3.25	0.41		
	Not bad**	2	0.70	3.95	0.02		
Interpersonal relation of practice***	With nurses	169	61.20				
	With patients and their family	32	11.60				
	With peers	39	14.10				
	With instructors	10	3.60				
	With other professions	9	3.30				
Others	17	6.20					
Duration of practicum(week)	10	5.76					
Lecture course*	Whole courses	78	29.30	3.50	0.49	2.684	.070
	None	3	1.10	3.12	0.46		
	Partial courses	185	69.50	3.38	0.40		
Transfer to 4year colleges	Yes	18	7.1	3.41	0.51	-0.202	.840
	No	235	92.9	3.43	0.43		

2. 감정노동,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대상자의 감정노동은 평균 3.13이었고 하부영역인 감정노동의 빈도는 3.62, 감정표현의 주의성은 3.00, 감정의 부조화는 2.78이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 3.65였으며 하부영역에서는 상황특성 3.48, 개인 특성은 2.85, 외부 조정 요인은 3.81이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평균 3.41이었으며, 하부영역인 실습과과는 3.19, 실습지도는 3.51, 실습환경은 3.58, 실습시간은 3.34, 실습평가는 3.41이었다.

<Table 2> Mean Scores of Emotion Labor,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Mean	SD	Min	Max
Emotional labor	3.13	±0.54	1.00	4.78
Frequency of emotional expression	3.62	±0.59	1.00	5.00
Level of emotion caution	3.00	±0.55	1.00	5.00
Emotional dissonance	2.78	±0.78	1.00	5.00
Clinical practice stress	3.65	±0.47	1.00	4.84
Situational characteristics	3.48	±0.47	0.97	4.63
Personal characteristics	2.85	±0.46	0.76	3.82
External regulators	3.81	±0.58	1.00	5.00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3.41	±0.43	2.39	4.81
Contents	3.19	±0.44	1.89	4.56
Guiding	3.51	±0.58	2.11	5.00
Placement	3.58	±0.53	2.43	5.00
Duration	3.34	±0.81	1.00	5.00
Evaluation	3.41	±0.76	1.00	5.00

3. 감정노동,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감정노동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0.353$, $p<.001$) 임상실습 만족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202$, $p=.001$).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 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170$, $p=.007$)(<Table 3>).

4. 감정노동,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감정노동,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임상실습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두고, 독립변수를 한번에 투입하는 입력방법을 사용한 회귀분석(모형1)과 통제변수를 고려한 위계적 회귀분석(모형2)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간의 다중 공선성은 모형1, 2 모두에서 독립변수의 공차한계가 모두 0.1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형1에서는 독립변수인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투입하였으며 1.8%의 설명력을 보였다($F=2.046$, $p=.132$). 감정노동이 1단위 증가할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0.141씩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2.009$, $p=.046$).

모형2에서는 독립변수 외에 통제 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 하였다. 분석에 앞서 통제변수들로 임상실습 만족도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인 성별, 전공 만족도, 건강상태, 평상시 주거형태, 성격, 대인관계, 실습동료와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 중 집단 크기 차이가 큰 성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1단계 분석에서 통제변수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건강상태, 주거형태, 성격, 대인관계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10.9%의 설명력을 보였으며($F=3.581$, $p=.001$) 건강상태와 대인관계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건강상태에서는 나쁜 경우에 비해 매우 좋은 경우는 0.402만큼($t=3.613$, $p<.001$), 좋은 경우는 0.347($t=2.749$, $p=.006$) 나쁜 경우는 0.329만큼($t=2.676$, $p=.008$)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다. 대인관계에서는 보통에 비해 좋은 편인 경우 0.154만큼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다($t=2.116$, $p=.035$). 2단계 분석에서는 통제변수 중 실습 관련 특성인 전공만족도와 실습동료와의 관계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motion Labor,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labor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r	p	r	p	r	p
Emotional labor	1.000					
Clinical practice stress	0.353	p<.001	1.000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0.202	.001	-0.170	.007	1.000	

<Table 4>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Model 1)

	B	SE	beta	t	p	VIF
Constant	3.736	0.251		14.857	p<.001	
Clinical practice stress	-0.105	0.052	-0.141	-2.009	.046	1.122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0.030	0.068	0.031	0.436	.663	1.122
	F=2.046	p= .132	adj R ² =.018			

분석결과는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8.9%의 설명력을 보였으며(F=5.367, p<.001) 전공만족도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인 경우와 비교하여 매우 만족인 경우 0.510만큼(t=5.179, p<.001), 만족인 경우 0.475만큼(t=3.937, p<.001), 보통인 경우 0.257만큼(t=2.294, p=.023)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다. 3단계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최종 투입하였다. 19.4%의 설명력을 보였으며(F=4.899, p<.001)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모두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정노동,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는 성별, 학년, 전공만족도, 건강상태, 성격, 대인관계, 실습 동료와의 관계, 이론수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전

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았는데 이는 Kim, Nam-Hee & Kim Kyung-Won(20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인 의지로 간호학과를 선택하고 전공만족도가 높은 만큼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4학년에 비해 3학년이, 성격이 긍정적이고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Yang, Nam-Young & Moon, Sun-Young(2011)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4학년의 경우 실습 기간이 증가할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피로가 증가하고 취업과 국가고시 등에 따른 부담으로 임상실습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성격과 대인관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조별 작업이 이루어지고 간호사 뿐 아니라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하는 임상실습에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이며 이 두 가지는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며 1,2학년에서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을 준비시킬 필요가 있겠다. 또한 학생이 자각하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평소 학생들의

건강상태 뿐 아니라 임상실습에 따르는 제반 환경문제가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교대실습으로 인해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실습지와의 거리에 따른 통학, 거주, 식사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실습에 대한 만족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임상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인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건강한 심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된 실습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

겠다.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간호대학생들의 감정노동은 평균 3.13이고 이 중 감정노동의 빈도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정의 부조화는 2.78 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Kang, So-Young(20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간호대학생은 간호사에 비해 약한 수준이기는 하나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중간이상의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감정노동의 빈도는 높으나 학생이 경험하는 감정의 부조화는 비교적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5>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Model II)

	1st Model						2nd Model						3rd Model															
	B	SE	beta	t	p	VIF	B	SE	beta	t	p	VIF	B	SE	beta	t	p	VIF										
(Constant)	2.991	0.14		21.355	p<.001		2.824	0.143		19.733	p<.001		3.213	0.280		11.489	p<.001											
Health Status	Very good	0.439	0.122	0.402	3.613	p<.001	3.257	0.298	0.117	0.272	2.547	.012	3.419	0.283	0.118	0.259	2.409	.017	3.481									
	Good	0.301	0.109	0.347	2.749	.006	4.198	0.192	0.106	0.221	1.815	.071	4.459	0.200	0.106	0.231	1.888	.060	4.502									
	Regular	0.293	0.110	0.329	2.676	.008	3.99	0.225	0.105	0.252	2.148	.033	4.136	0.230	0.105	0.258	2.197	.029	4.17									
	Bad	Reference																										
Residential Type_lecture	Family home	0.082	0.066	0.08	1.231	.220	1.107	0.074	0.062	0.072	1.180	.239	1.118	0.079	0.062	0.078	1.273	.204	1.122									
	Dormitory	0.018	0.071	0.016	0.248	.804	1.074	0.023	0.067	0.021	0.343	.732	1.080	0.036	0.067	0.032	0.535	.593	1.099									
	Self boarding	Reference																										
Personality	Positive	0.042	0.120	0.049	0.346	.730	5.303	-0.123	0.117	-0.145	-1.054	.293	5.671	-0.145	0.118	-0.17	-1.23	.220	5.785									
	Neutral	0.023	0.118	0.026	0.191	.849	5.010	-0.068	0.113	-0.079	-0.599	.549	5.221	-0.082	0.114	-0.096	-0.724	.470	5.277									
	Negative	Reference																										
Interpersonal relation	Good	0.130	0.062	0.154	2.116	.035	1.392	0.08	0.064	0.094	1.254	.211	1.685	0.079	0.063	0.093	1.241	.216	1.686									
	Neutral	Reference																										
Satisfaction on major	Very satisfied							0.618	0.119	0.51	5.179	p<.001	2.911	0.604	0.12	0.499	5.034	p<.001	2.964									
	Satisfied							0.403	0.102	0.475	3.937	p<.001	4.367	0.404	0.103	0.477	3.939	p<.001	4.414									
	Neutral							0.242	0.105	0.257	2.294	.023	3.749	0.25	0.105	0.265	2.369	.019	3.774									
	Dissatisfied							Reference																				
Peer relationship	Very good							0.153	0.092	0.136	1.664	.097	2.007	0.149	0.092	0.133	1.615	.108	2.036									
	Good							0.044	0.064	0.051	0.678	.499	1.68	0.045	0.064	0.053	0.701	.484	1.694									
	Neutral							Reference																				
Emotional labor													-0.01	0.051	-0.013	-0.196	.844	1.287										
Clinical practice stress																			-0.095	0.057	-0.106	-1.678	.095	1.203				
F=3.581, p=.001, adj R2=.109						F=5.367, p<.001, adj R2=.189						F=4.899, p<.001, adj R2=.194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데 간호업무에서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비중이 많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은 환자간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최근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이 환자에 대한 직접간호보다는 관찰위주의 실습이 되고 있어 간호사들의 감정노동에 비해서는 약한 수준이며 감정노동의 빈도는 높으나 Grandey, Alicia(2000)의 주장처럼 임상실습 기간 중 간호사들의 간호행위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과정에서 학습의 효과로 인한 감정노동 이후에 비교적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 평균 3.65로 중간이상의 스트레스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Lee, Hea-Sook & Kim, Eun-Joo(2008)의 4점 척도 시 평균 2.71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Park, Hyun-Jung & Oh, Jae-Woo(2014)의 2.8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높고 낮음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대다수의 결과들이 중간이상의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으며 전공만족도와 전문직관과도 부적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임상실습 만족도와는 부적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임상실습은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며 이에 대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만족도가 3.53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는 전문대학의 2, 3학년 대상자로 한 Lee, Hea-Sook & Kim, Eun-Joo(2008), Park Hyun-Joo & Jang In Sun(2010), Lee, Sung-Eun(2001)의 연구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며 4년제 학생 대상자로 한 Sung, Mi-Hae(2012)와 Yang, Nam-Young & Moon, Sun-Young(2011)의 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3년제 간호대학생들에 비해 4년제 학생들의 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제에 따른 실습만족도 차이는 있으나 간호교육 일원화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그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

겠다.

임상실습 만족도와 감정노동, 임상실습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감정노동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r=.353, p<.001$) 임상실습 만족도와는 음의 상관관계($r=-.202, p=.001$)보여 감정노동의 정도가 높으면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임상실습 만족도가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 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r=-.170, p=.007$)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으면 임상실습 만족도가 감소하였다. 이는 감정노동의 정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감정노동의 정도가 유의하게 임상실습 만족도를 낮추었으나($\beta=-0.141, t=-2.009, p=.046$), 일부 일반적 특성을 통제 변수로 설정했을 때는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모두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만족도는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정노동이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만, 감정노동에는 건강상태, 대인관계, 전공 만족도와 같은 일반적 특성이 작용하여 임상실습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된다. 이는 임상실습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으로 대인관계, 간호학을 자의에 따라 선택한 경우, 간호과에 대한 만족도를 제시한 Lee, Soon-Hee · Kim, Sook-Young & Kim, Jung-A(200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감정노동은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요소들 외에 다양한 요건들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과 이들 요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효과적인 임상실습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감정노동,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는 성별, 전공만족도, 건강상태, 평상시 주거형태, 성격, 실습동료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모두 중간이상의 정도를 나타내고, 이 두 변수 모두 임상실습 만족도에 음의 상관을 보였다. 감정노동은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일반적 변수를 통제할 경우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모두 임상실습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노동의 정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나, 이에 앞서 학생들의 심신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본 여건이 확보된 상태에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실습동료와의 관계 개선 및 증진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간호교육기관은 실습기관 관리 뿐 아니라 학생들의 기본적인 심신 건강과 관련된 요인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며 감정노동의 정도를 감소시키고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여야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과된 감정노동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Arieli, Deniella(2013). Emotional Work and Diversity in Clinical Placement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45(2), 192~201.

Benner, Petricia · Sutphen, Molly · Leonard, Victoria & Day, Lisa(2009). *Educating nurses: A call for radical transformation*. Jossey-Base, San Francisco, California.

Choi, Gui-Yun(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regarding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and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1(1), 129~139.

Faul, Franz · Erdfelder, Edgar · Lang, Albert Gorge · Buchner, Axel.(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Grandey, Alicia(2000). Emotional Regulation in the Workplace: A New way to Conceptualize Emotional Labor,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 95~110.

Han, Jung-Jin(2012).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 *Dissertation of Master in Clinical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KABONE(2014). Accreditation Criteria of Nursing Education, <http://www.kabone.or.kr/kabon02/index04.php>

Kang, So-Young(2015). Impact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Labor on Burnout during Nursing Practice in a Hospital: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1(1), 77~87.

Kim, In-Soon(2009). The Role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 out, Turn over Intention amo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5(4), 515~526.

Kim, Mi-Jong(1998). Effect of the Hotel Employee's Emotional Labort upon the Job-related Atitude,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1(2), 129~141.

Kim, Mi-Jong · Yoo, Seung-Yeon(2014). The Perception-Coping Types of Initial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Q 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militry nursing research*, 32(1), 105~118.

Kim, Nam-Hee · Kim Kyung-Won(2011). Self-Efficacy,

-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5(4), 45~51.
- Lee, Hea-Sook · Kim, Eun-Joo(2008). The Comparison of Stress Cop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the Grade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4(1), 5~13.
- Lee, Soon-Hee · Kim, Sook-Young & Kim, Jung-A (2004).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0(2), 219~231.
- Lee, Sung-Eun(2001). A Study on Satisfaction an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Direction for Clinical Education : Focused on Maternity Nursing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7(2), 333~348.
- Löfmark, Anna · Smide, Bibbi & Wikblad, Kerin (2006). Competence of newly-graduated nurses-a comparison of the perceptions of qualified nurses and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3(6), 721~728.
- Park Hyun-Joo · Jang In Sun(2010).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14~23.
- Park, Hyun-Jung · Oh, Jae-Woo(2014).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2), 417~426.
- Park, Mi-Mi · Han, Suk-Jung.(2013). Relations of Job Satisfaction with Emotional Labor, Job Stress, and Personal Resources in Home Healthcar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4(1), 51~61.
- Song, Mi-Ra · Park, Kuem-Ju(2011). Emotional Labor Experienced by Ambulatory Care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7(4), 451~461.
- Sung, Mi-Hae(2012). Factors Influenc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8(1), 18~24.
- Whang, Sung-Ja(2002).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a Tool for the Nursing Students' Clinical Stress, *Journal of the Margaret Pritchard College of Nursing*, 14(1), 35~54.
- Whang, Sung-Ja(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 Yang, Nam-Young · Moon, Sun-Young(2011).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7(2), 216~225.
- Yang, Jin-Ju(2009). The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5(2), 159~165.

-
- Received : 14 January, 2016
 - Revised : 25 February, 2016
 - Accepted : 11 March, 2016